

지리산이 있어 사는 이야기 _ 이수일 박사 대담

수달박사로 더 알려진 이수일 박사 보존과 보전, 생태계의 화두

경남 자연학습원 연수원교수로 있는 이수일 박사.
점잖고 잘생긴 용모에 학자풍이 물씬한 그는
지리산 특히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동식물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해마다 문제로 부각되는 염구류의 제거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바로 이박사.
그에게 박종규 작가는 비수 같은 질문부터 꽃는다.



개발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필수적으로 자연훼손을 수반합니다. 박사님은 어떤 철학으로 개발에 대응하십니까? 보존과 보전, 이것이 제 철학입니다. 보존이 되고 보전이 되는 한에서만 개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원칙 지켜내셔야 하겠습니다. 연구제거 사업도 박사님이 시작하셨는데...

연구제거사업만 해도 농민들의 시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 년 농사를 동물들이 망쳐놓기 일수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연구라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케이블카 설치나 골프장 문제 등도 찬반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미래가치 쪽에서 나와 합니다.

반달곰의 생사를 물었다. 토종 5~6마리의 생존 사실이 확인됐고 북한 등에서 27마리를 들여왔다는 뉴스를 얼핏 접했기 때문이다. 밀렵꾼들의 사냥 울무에 12마리 이상이 숨졌다고 했다. (다행히 이 취재 후 반달곰이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 별도 취재를 했으므로 생략.) 지리산은 성모할머니를 산신으로 둔 어머니 산이라며, 부드러운 능선과 완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계곡이 깊어 희귀 동식물들의 번식에 적합하다고 했다. 일본열도 판에 밀려 바다의 지층이 융기되면서 솟아오른 지리산은 지금도 정상부근에서 따개비가 발견되고, 염도가 높은 토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노루 같은 짐승들은 염분이 아주 중요한데 지리산에서 노루 새끼들이 잘 자라는 데에도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그는 지리산의 환경지킴이로서 금년도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았다. 그가 열거하는 소위 환경문화행사로는, 환경사진 전시회, 환경노래합창대회, 환경음악회, 숲속 음악회 등이 있는데, 사진 전시회의 경우는 4-6월에 공모를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8월 16일 개최될 환경음악회는 정훈회 노래인생 40년 행사를 겸하게 되어있어 진주 mbc, 환경부, 경남교육청, 산청양수발전소 등에서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취재진들의 참여를 권유해 왔다. 정훈회는 '안개' '꽃밭에서' '꽃길' 등 환경관련 노래를 많이 불렀던 가수다. 이 행사들은 일종의 환경페스티벌로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